

# 해방~한국전쟁기 메리놀 외방전교회의 재진출과 구호 활동

이민석\*

1. 머리말
2. 해방 후 메리놀 선교사들의 한국 재진출과 반공주의
3. 캐롤 몬시놀과 가톨릭구제회 활동
4. 맺는말

## 국문 초록

이 연구는 1945년 해방부터 한국전쟁기에 이르기까지 메리놀회와 가톨릭구제회(CRS)가 한국 사회에서 수행한 선교 및 구호 활동을 고찰하였다.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강제 추방된 메리놀 선교사들은 해방 이후 남한에 재진출하였으나,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 체제의 고착으로 본래 사목지 평양 대목구로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메리놀회는 한국 천주교회와 미군정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냉전 이데올로기에 대응하여 반공주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북한 공산 정권의 종교 탄압에 맞서 활동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는 캐롤 몬시놀이 주도한 가톨릭구제회가 난민과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대규모 인도적 구호 활동을 전개하였다. 식량, 의약품, 의류 등 막대한 양의 원조 물자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 한국교회사연구소 책임연구원.

분배하면서 긴급 구호, 의료 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쳤으며, 이는 전후 한국 사회의 재건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메리놀 선교사들은 군중 제도 설립에 기여하고, 포로수용소에서의 사목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 상황에 대응하였다. 이와 함께, 평양 대목구를 대신할 새로운 선교지로 충청북도의 사목권을 위임받아 활동을 재편하였다.

주제어: 메리놀회, 가톨릭구제회, 군중, 캐롤 몬시뇰

## 1. 머리말

메리놀 외방전교회(The Catholic Foreign Mission Society of America-Maryknoll Fathers & Brothers ; M.M., 이하 메리놀회)는 1911년 ‘하느님의 종’ 월시(James Anthony Walsh, 1867~1936) 신부가 ‘하느님의 종’ 프라이스(Thomas Frederick Price, 1860~1919) 신부와 함께 아시아 선교를 위해 창설한 미국 천주교 외방전교회이다.<sup>1)</sup> 메리놀회는 일찍부터 전교지 *The Field Afar*(*Maryknoll Magazine*의 전신)를 간행하여 미국 천주교 신자들에게 아시아 선교의 중요성을 널리 전파하고, 아시아 선교지에 선교자금을 후원하는 등 아시아 선교 준비에 힘을 쏟았다. 드디어 1918년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중국 광둥성(廣東省) 양장(陽江) 지역 선교권을 위임받고, 아시아 선교를 본격

1) 당시 해외 선교 현장에는 미국 출신 사제와 영어 화자(話者) 사제가 부족하였고, 유럽 외방선교회도 미국에 선교회 지부를 설치하지 않았고, 만들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유로 메리놀회가 설립되었다.

적으로 시작하였다.<sup>2)</sup> 그리고 1920년 광시성(廣西省) 우저우(梧州) 지역, 1924년 광둥성의 장먼(江門) 지역, 1925년 역시 광둥의 지아잉(嘉應)과 만주 지역의 푸순(撫順), 1933년 다시 광시성의 구이린(桂林) 지역을 관할하는 데 이르렀다. 1922년에는 한국의 평안도 지역을 위임받고 1927년 평양 지목구를 설정하였다. 1935년에는 일본 교토(京都) 지목구 선교를<sup>3)</sup> 맡았다. 즉 메리놀회는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토착 교회의 성립, 현지인 사제 양성 등을 위해 활발한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한국, 일본, 만주 지역 등에서 활동하던 메리놀 선교사들은 일제로부터 미국의 스파이 혐의를 받아 감금 생활 끝에 이듬해 6월 미국으로 추방당하였다.<sup>4)</sup> 국공내전 끝에 1949년 중국이 공산화 되었고, 메리놀 선교사들은 미국의 간첩 혐의를 받고 구금되었다가 1953년에 강제 출국당하였다. 한국전쟁 중에는 초대 평양 지목구장이자 해방 후 초대 교황사절로 한국에 재입국한 패트릭 번(James P. Byrne, 方淦恩, 1888~1950) 주교가 '죽음의 행진' 끝에 1950년 11월 만포 하창리수용소에서 순교하였다. 동아시아 선교에 일조하였던 메리놀회는 일제의 제국주의 팽창 야욕과 중국과 북한의 공산화, 한국전쟁으로 사목지를 잃기도 하였다. 한국의 경우, 메리놀회는 해방 후 남한에 진출하여 선교활동을 재개하였다. 메리놀 선교사들은 교회 재건과 함께 의료, 교육, 자선사업 등 구호 활동에 주력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은 메리놀회의 활동에 전환점을 가져왔으며, 가톨릭구제회(CRS)와 협력하여 피난민과 전쟁고아를 위한 구

2) 당시 중국에 먼저 진출한 선교회들은 반복해서 메리놀이 중국에 들어와 달라고 촉구(促求)하였다. 로마의 고위 성직자들도 중국에는 미국인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메리놀회의 중국 선교는 Wiest Jean-Paul, *maryknoll in china*, Hutchinson, 1988 ; 신주현, 「메리놀회의 중국 진입과 적응에 대한 초보적 탐색 -적응주의와 토착화 사이에서-」, 『교회사연구』 64, 2024 참조.

3) 교토 지목구 설정은 미야자키 요시노부, 「교토(京都) 지목구 설정과 그 의의」, 『2023년 한국교회사연구소 국제 심포지엄 -메리놀외방전교회 한국 진출 100주년 기념-』, 2023 참조.

4) 당시 동아시아에서 활동하던 메리놀회 사제는 203명이었다. 그 가운데 107명이 쫓겨났다(김성희, 「메리놀 외방전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4, 2004, 2595쪽).

호, 병원 운영, 식량 및 의약품 지원 등의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동시에 미군 및 유엔군과의 연계를 통해 군종신부로도 활동하였다.

1923년 한국 진출부터 한국전쟁기까지 메리놀회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통사로서는 1977년 평양교구 설정 50주년을 기념하여 간행된 평양 지목구 전반을 다룬 『천주교평양교구사』와<sup>5)</sup> 해방 후 메리놀회의 청주교구와 인천교구 사목활동을 다룬 *MISSION IN THE SOUTH*가 있다.<sup>6)</sup> 인물사로는 초대 평양지목구장이자 한국 초대 교황사절 패트릭 번 주교의 생애를 정리한 저서가 눈에 띈다.<sup>7)</sup> 모리스(John E. Morris, 睦怡世, 1889~1987) 몬시뇰이 메리놀 본부와 주고받은 서한을 엮은 자료집<sup>8)</sup>은 일제시기 평양 지목구의 활동을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연구 논문으로는 메리놀회의 한국 진출 과정을 다룬 논문,<sup>9)</sup> 일제시기 메리놀회의 평양 지목구 선교활동에 관한 연구,<sup>10)</sup> 메리놀회의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다룬 논문,<sup>11)</sup> 성 베네딕도회와 메리놀회의 선교 방법 비교연

- 5) 평양교구사편찬위원회 편, 『천주교평양교구사』, 분도출판사, 1981.
- 6) Rev. Robert Martin Lilly, M.M., *MISSION IN THE SOUTH*, 오늘의 말씀, 2002.
- 7) Lane, Raymond A., *Ambassador in chains : the life of Bishop Patrick James Byrne, 1888-1950*, P. J. Kenedy, 1955(레이먼드 A. 레인, 박준영 역, 『기억의 돌보기 - 패트릭 번 주교의 생애-』, 바오로딸, 1994).
- 8) John Edward Morris, *Father John E. Morris, M. M.*, Seoul :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1994 ; John Edward Morris 저, 이정순 엮음, 『목요안 신부』,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1994.
- 9) 윤선자, 「1920년대 국제정세와 한국 종교계의 관계」, 『역사학연구』 28, 2006 ; 최선희, 「한국 천주교회의 미국 천주교 외방선교회(메리놀회)와의 교류와 그 의의 : 1911~1923」, 『교회사연구』 49, 2016, 이민석, 「일제의 종교정책과 메리놀외방선교회의 한국 진출」, 『교회사연구』 64, 2024.
- 10) 김수태, 「메리놀 외방선교회의 진출과 활동 - 목이세(John E. Morris) 신부를 중심으로」, 『부산교회사보』 29, 1999 ; 「1930년대 평양교구의 가톨릭 운동」, 『교회사연구』 19, 2002.
- 11) 정동훈, 「일제 강점기하의 한국 천주교회와 신사 참배에 관한 고찰」, 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1994 ; 「일제 강점기하의 한국 천주교회와 신사 참배에 관한 고찰」, 『교회사연구』 11, 1996 ; 尹善子, 「日本 軍國主義 宗教政策과 朝鮮 天主敎會의 神社參拜」, 『韓國史研究』 98, 1997 ; 방상근, 「일제하 한국천주교회의 신사 참배에 대한 연구」,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 김수태, 「1930년대 평양교구의 신사 참배 거부 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구,<sup>12)</sup> 평양지목구 잡지 『가톨릭연구』를 분석한 논문,<sup>13)</sup> 그리고 평양 지목구의 설정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유급회장의 활동에 관한 연구,<sup>14)</sup> 한국전쟁 전후 메리놀회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sup>15)</sup> 등이 확인된다. 이처럼 일제시기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메리놀회의 한국 선교 활동은 다양한 연구가 있다.

그럼에도 1945년 해방 후 메리놀회의 한국 재진출 과정과 한국전쟁기 활동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메리놀회는 1947년 한국에 재진출하여 한국전쟁기 가톨릭구제회를 중심으로 원조와 구호 활동, 거제와 마산 포로수용소에서의 활동 등을 펼치며, 1951년 1월 1·4후퇴 이후 완전히 사목을 포기해야만 하였던 평양 대목구를 대체할 새로운 선교지를 찾고 있었다. 이 글은 북한 정권의 수립 이후 남한에 재진출한 메리놀 선교사들의 반공주의 활동과 한국전쟁기 구호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일제시기

38. 2004(『미주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2004) : 이민석, 「1935년 ‘신의주 국제스파이 사건과 일제의 메리놀 외방선교회 압박」, 『교회사연구』 55, 2019.

- 12) 李錫載, 「일제 강점기 독일 芬道會와 미국 메리놀회의 선교방법 비교연구」, 『仁荷史學』 9, 2002.
- 13) 「1930년대 평양교구의 한국천주교회사 연구」, 『韓國史學史學報』 11, 2005 ; 「1930년대 천주교 평양교구의 문서선교 -『가톨릭연구』·『가톨릭조선』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47, 2006 ; 「일제강점기 평양교구의 세계 천주교회사 연구」, 『교회사학』 25, 2014; 김규성 「『가톨릭연구』에 나온 조선천주교회사 기사 연구」, 『교회사학』 14, 2017.
- 14) 최선혜, 「한국 천주교회 전교회장의 활동과 의의 : 1923~1950 -평양교구 유급(有給) 전 교회장을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51, 2017.
- 15) 장정란, 「한국전쟁과 외국 가톨릭 교회의 전재 복구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 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 2 - 해방 공간과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 여진천, 「제1공화국 초기 교육 활동과 문교 정책에 대한 비판 -메리놀회 문서를 통하여-」, 『교회사연구』 23, 2004 ; 여진천, 「천주교회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인식과 기여」, 『교회사연구』 32, 2009 ; 최선혜, 「냉전시대 캐롤 몬시뇰의 구호 활동과 그 의의」, 『교회사연구』 34, 2010 ; 최선혜, 「한국 전쟁기 천주교회와 공산 정권—초대 주한 교황사절 번주교(Bishop Byrne)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44, 2014 ; 최선혜, 「1940년대 천주교회의 한국 선교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 메리놀 외방선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 『교회사연구』 47, 2015 ; 이민석, 「메리놀 외방선교회의 동아시아 한센인 구호사업과 스위니(Joseph A. Sweeney) 신부의 활동」, 『서강인문논총』 61, 2021 ; 이민석, 「하느님의 종 패트릭 번 주교의 선교활동과 순교」, 『아시아가톨릭연구』 2, 2023.

메리놀회 활동에 비해 잘 정리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논의된 해방~한국전쟁기 메리놀회의 선교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방 이후 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정세 속에서 메리놀 선교사들의 반공주의 활동, 그리고 전후 재건 과정에서의 구호 활동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2. 해방 후 메리놀 선교사들의 한국 재진출과 반공주의

메리놀회가 사목한 평양 지목구는 1939년 7월 11일 대목구로 승격하였다. 1941년 평양 대목구 교세는 신부 43명(메리놀회 35, 한국인 8), 수녀 39명(메리놀 수녀회 15, 한국인 24), 전교 회장 112명, 신자 26,424명, 예비자 3,170명, 본당 21개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다.<sup>16)</sup> 하지만 1941년 12월 7일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메리놀 선교사들은 일제로부터 미국 스파이 혐의로 평양 대목구 서포 주교관, 평안도 각 지방 경찰서에 연행되어 감금 생활 끝에 이듬해 6월 미국으로 추방당하였다.<sup>17)</sup>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맞았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소련 양국의 냉전 갈등 가운데 38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군이 그리고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리게 되었다. 이 때문에 평양 대목구는 소련군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고, 메리놀 선교사들은 해방을 맞았지만, 그들의 사목지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메리놀 선교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남한에 진출할 수밖에 없었다. 1947년 1월 입국한 메리놀회의 부드(William R. Booth, 夫, 1898~1973) 신부, 페티프렌(Roy D. Petipren, 邊聖行, 1893~1977) 신부, 캐롤 몬시놀(George

16) 평양교구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33쪽.

17) 당시 동아시아에서 활동하던 메리놀회 사제는 203명이었다. 그 가운데 107명이 쫓겨났다(김성희, 「메리놀 외방전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4, 2004, 2595쪽).

M. Carroll, 安, 1906~1981)은 본격적인 본당 사목에 착수하기까지 약 1년 동안 명동 성당 구내에 거주하면서 한국천주교와 미군정 당국 사이에 여러 가지 주요 사무를 맡아 보았다.<sup>18)</sup> 이어 2월에 치솜(Donald Chisholm, 池, 1892~1960) 신부, 4월 클리어리(Patrick Cleary, 吉, 1896~1970), 더피(Patrick Duffy, 都, 1899~1980) 신부 등이 내한하였다. 이들은 모두 평양 지목구 창설 전후에 진출하여 전교지 개척에 큰 역을 담당하였던 선교사들이다. 한국에 재진출한 메리놀 선교사들은 1947년 9월 초대 주한 교황사절로 부임한 패트릭 번 몬시놀과 함께 미군정의 핵심 인물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서울 대목구장 노기남(盧基南, 바오로, 1902~1984) 주교에게 많은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여 교회의 활동반경을 넓혀주고 원활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다. 노기남 주교는 교황사절 번 주교를 비롯한 메리놀 선교사들의 조언을 얻어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었다.<sup>19)</sup>

1947년 교토 지목구장 패트릭 번 몬시놀이 초대 교황사절로 한국에 파견되었다.<sup>20)</sup> 1947년 8월 12일 로마 교황청에서 메리놀회로 한 통의 전보를 보냈다. “푸마소니(Pietro Fumasoni Biondi, 1872~1960)<sup>21)</sup> 추기경은 패트릭 번 신부가 주한 교황사절로 임명되었음을 통지하는 바입니다”는 내용이었다. 교황청에서 한국에 교황사절을 파견한다고 하였을 때, 번 몬시놀만 한 인물은 없었다. 그는 이미 초대 평양 지목구장으로서 한국 선교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주한 교황사절로 온 지 2년 후 1949년 4월 17일 교황청은 정식으로 패트릭 번을 초대 주한 교황대사로 격상·임명하였다. 그리고 6월 14일 명동대성당에서 패트릭 번의 주교 성성식이 거행되었다. 교황청의 결정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었다. 1947년 교황청이

18) 『경향잡지』 1947년 2월호, 29쪽.

19) 노기남 주교와 미군정과의 관계, 반공주의는 김수자, 『해방 이후 노기남 주교와 반공주의 : 1945~1953』, 『교회사연구』 35, 2010 참조.

20) 『경향신문』 1947년 8월 14일자 「조선 주재 교황 순찰관 신설」.

21) 1933년부터 선종하는 1960년까지 포교성성 장관을 역임한 인물.

패트릭 번을 주한 교황사절로 파견한 것은 교황청이 남한을 국제적으로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맺으려는 것을 뜻하였다. 그리고 1949년 교황대사 임명은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에 부응하듯이 패트릭 번 주교는 주한 교황사절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로서 국제 사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위해 앞장섰다.<sup>22)</sup>

1948년에는 크레이그(Hugh Craig, 奇, 1899~1981) 신부가 내한하여 경기도 부평에 본당 설치를 준비하다가 그해 6월 서울대목구 혜화동 본당 5대 주임 신부로 부임하였다.<sup>23)</sup> 한국전쟁이 끝난 1955년부터는 일찍이 평양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메리놀 선교사들이 계속 내한하였다. 조셉 스위니((Joseph A. Sweeney, 徐耀燮, 1895~1966) 신부,<sup>24)</sup> 포스피칼(Hubert M. Pospichal, 裴, 1887~1968) 신부<sup>25)</sup> 등이 한국에 재입국하였다. 1959년 10월에는 평양 지목구 제2대 교구장 모리스 몬시놀<sup>26)</sup>이 한국 땅을 밟았다.

패트릭 번 주교 등 메리놀 선교사가 한국에 다시 온 시기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熱戰)이 막을 내리고, 미국과 소련 양 강대국의 이념 대립이 점점 격화되어 냉전(冷戰)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종전 후 소련은 주변

22) 최선혜, 앞의 논문, 2014, 10쪽.

23) 평양교구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44쪽.

24) 조셉 스위니의 활동은 이민석, 앞의 논문, 2021 참조.

25) 1920년 9월 1일 메리놀회에 입회하여 1925년 5월 31일 사제로 서품되고, 그해 한국에 파견되었다. 1942년 태평양전쟁으로 추방될 때까지 한국에서 선교하였고, 1956년 다시 돌아와 1962년까지 한센인을 치료하는 활동을 하였다.

26) 모리스 몬시놀은 1889년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폴리버(Fall River)에서 태어났다. 1909년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성 던스턴 대학(St. Dunstan's College)을 졸업하고, 볼티모어(Baltimore) 성 마리아 신학교(St. Mary's Seminary)에서 공부한 후 1914년 폴리버교구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7년간 성 요셉 성당 보좌신부로 봉사하였다. 1921년 메리놀회에 입회하였고, 베나드(Venard) 메리놀 소신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메리놀회 홍보 활동을 하다가, 1923년 한국 평양에 파견되었다. 모리스는 자신의 이름을 목이세(睦怡世)로 짓고, 1924년부터 영유 본당 신부로 활동하다 1930년 4월 1일 제2대 평양 지목구장에 임명되었다.

국을 위성국가로 편입시키기 시작하였다. 중국에서는 장제스(蔣介石, 1887~1975)의 국민당 정부가 점차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의 중공군에게 후퇴하고 있었다.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갓 해방된 한반도는 각각 미·소 군정이 실시되었다. 이후 1948년 남과 북은 별도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남북의 분단과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은 이 냉전의 영향이었다.

한국천주교회 역시 냉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소련은 북한 천주교회에 교황청과의 소통을 단절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이를 거부하면 투옥하였다. 중국에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서방 국가와의 관계 청산을 요구하였다. 북한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다. 북한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종교 교육을 금지하고 종교활동 역시 제한하였다.<sup>27)</sup> 특히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후 북한은 종교박해와 교회 탄압을 본격화하였다. 교회나 수도원 내부에 천주교 신자로 위장한 스파이를 잠입시켜 교회 내의 집회 출석자 명단이나 대화 내용을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령에 따라서 갖가지 공작을 폈다. 그리고 교회나 수도원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증거를 날조하고 철저히 교회를 궤멸하기 위한 구실로 삼았다.<sup>28)</sup>

이렇듯 소련, 중국,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종교 탄압에 대응하여 한국 천주교회는 1947년 『경향잡지』에 「파티마의 성모」를 1947년 7월호부터 1948년 8월호까지 총 14회에 걸쳐 연재하면서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할 것과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승공(勝共)을 강조하였다.<sup>29)</sup> 『가톨릭청년』도 1947년 11월호에서 비오 11세 교황이 1937년에 선포한 「무신적 공산주의를 배격함」이란 회칙을 인용하여, “공산주의는 인간을 기계의 부품과 같이 취급하여 인권을 파괴하고 부모의 권리를 배제

27) 이민석, 앞의 논문, 2021, 50쪽.

28) 김연수, 「북한 가톨릭교회의 역사적 변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논문, 2018, 56~66쪽.

29) 『경향잡지』 1947년 7월호~1948년 8월호.

하고 결혼의 불가해소성을 배척함으로써 가정의 행복을 파괴한다고 비판” 하였다. 이어서 “볼셰비키 공산주의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전 조선 20만 가톨릭 신자의 적이며 삼천만 동포의 적이며 전 세계 그리스도교인의 적”이라고 하였다.<sup>30)</sup> 1947년 교황사절 패트릭 번 주교 역시 공산주의와의 사상 대결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번 주교는 1947년 10월 서울 명동의 계성여중에서 천주교 청년연합회가 주최한 연설에서, “현재의 가톨릭운동은 공산주의를 타도할 수 있는 유일한 역량”이라고 강조한 것을 비롯하여,<sup>31)</sup> 1948년 5월 연희대학 초청 연설<sup>32)</sup> 등에서 수시로 반공을 강조하고 공산주의를 이길 능력을 기르자고 주장하였다.<sup>33)</sup>

한편 북한 정권은 1948년 12월에 성 베네딕도회의 덕원 수도원 경리 담당 신부와 수도사를 체포하고, 1949년 5월에는 원산 대목구의 보니파시오 사우어(辛上院, Bonifatius Sauer, 1877~1950) 아바스와 수도원장 신부 등 40명을 체포, 투옥하였다. 또한, 신학교 교장 등 독일인 신부 8명, 한국인 신부 4명, 수도자 22명을 투옥하였다. 그리고 한국인 수사 26명과 신학생 73명을 내쫓고 수도원과 신학교 등 모든 교회 시설물을 몰수하였다.<sup>34)</sup> 그래서 소유 토지 대부분을 몰수당하고 단지 5헥타르의 정원과 경작 중인 땅만 남았다.<sup>35)</sup> 홍용호 주교는 덕원수도원과 함흥 대목구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체포되고 성당이 폐쇄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즉시 북한당국에 항의문을 전달하였다.<sup>36)</sup> 그 결과 1949년 5월 14일 서포 영원한 도움

30) 『가톨릭청년』 1947년 11월호 7쪽.

31) 『가톨릭청년』 1947년 11월호, 2~3쪽.

32) 『경향잡지』 1948년 5월호, 75쪽.

33) 패트릭 번 주교의 반공 활동은 여진천, 2009 ; 최선혜, 2014 참조.

34)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함경도 천주교회사』, 1995, 382~383쪽.

35) 장정란, 『한국 성 베네딕도 수도회 출신 순교자 연구: 시복·시성 대상 인물 분석』, 『교회사연구』 33, 2009, 369쪽.

36) 항의문 내용은 1. 한국에서 40년 간 농업, 교육, 과학, 문화 등에 허다히 공헌한 선교사를 불법 체포할 수 없다. 2. 교회를 폐쇄한 것은 확실히 종교 박해로서 북조선 정권 헌법에 위배된다. (북한의 헌법에는 인민의 정당한 권리와 종교 자유 보장이 성문화 되어 있다.) 3.

의 성모 수녀회를 방문하던 중 그를 수행하던 두 소년과 함께 연행되어 행방불명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양인민교화소의 한 직원이 홍용호 주교가 평양인민교화소 특별정치범 감방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1950년 10월 국군의 평양탈환 직전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북쪽으로 이송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홍 주교가 납치된 후 1949년 12월까지 9명의 신부가 잡혀갔다. 6월 10일 부감독 김필현 신부, 교구 경리부장 겸 주교 비서 최항준(崔恒俊, 마티아, 1920~1950?) 신부, 대성당 기성회 이사 강유선이 북한 정치보위부원에게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었고, 7월 8일에는 평북 강계 본당의 석원섭(石元燮, 마르코, 1919~1950?) 신부가 고열로 앓던 중 연행되어 갔는데 최삼준(崔三俊, 일명 자백[慈伯], 프란치스코, 1907~1950?) 회장이 함께 체포되었다. 12월 7일에는 평양 선교리 본당의 박용옥(朴瓏玉, 티모테오, 1913~1950?) 신부, 관후리 본당 보좌 서운석(徐雲錫, 보니파시오, 1922~1950?) 신부, 기림리 본당 주임 이재호(李載虎, 알렉시오, 1919~1950?) 신부가 체포되었다. 관후리 본당과 대신리 본당에 파견되었던 수녀들은 상수구리 분원에 연금되었다. 12월 10일 신의주 본당 주임 홍건항(洪建恒, 갈리스토, 1913~1950?) 신부, 11일 영유 본당 홍도근(洪道根, 요한 세례자, 1915~1950?) 신부, 12일 장두봉(張斗鳳, 안드레아, 1917~1950?) 신부가 차례로 체포·연행되어 행방불명되었다.<sup>37)</sup>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에 나머지 평양 대목구 신부들은 북한 당국에 연행되어 죽임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

이러한 북한 상황에 대하여 『경향잡지』는 1949년 6월호에서는 “북한 공산당 정권은 지난 5월 10일 돌연 덕원 보니파시오(Sauer Bonifatius, 1877~1950) 주교와 신부, 수사, 원산의 신부, 수녀들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교회와 개인과는 전연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일개인의 범죄로 교회를 폐쇄함은 상식적으로라도 허용할 수 없다. 4. 체포된 전원을 즉시 무조건 석방할 것과 교회를 즉시 개방하라.

37) 평양교구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21~236쪽.

수도원 신학교 수녀원 건물과 가구 전부를 몰수하였고, 평양 홍(洪龍浩, 프란치스코) 주교는 서포에 가셨다가 귀환 도중 납치되어 행방불명되었다고 한다. … 북한에 본격적 종교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보도하였다.<sup>38)</sup> 패트릭 번 주교 역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엄중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캐롤 몬시뇰은 “번 주교가 한국에 온 이래로 공산주의를 강하게 비판하여, ‘빨갱이’들이 그를 탄압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라는 우려할 정도였다.<sup>39)</sup> 머지않아 캐롤 몬시뇰의 걱정대로 북한 정부는 라디오 방송으로 패트릭 번을 비난하며, 체포하게 되면 엄중히 다스릴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홍용호 주교 납치 이후 교황청으로부터 7대 평양 대목구장 서리로 임명된 캐롤 몬시뇰은 1950년 10월 20일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탈환하자 함께 북진하여 메리놀 선교사들의 선교지를 수복하였다. 캐롤 몬시뇰과 노기남 주교는 11월 12일 평양을 방문하고 교회 복구작업에 착수하였다. 메리놀회 더피 신부, 페티프렌 신부와 강요한 신부 등을 평양 대목구 주요 도시의 본당신부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실종된 번 주교, 부드 신부의 소식을 추적하였다. 이들은 평안도 지역을 순례하면서 세례와 미사를 집전하고 살해된 신자들의 시신을 축복해 주었다. 평양 대목구 복구작업에 착수하여 인사이동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12월 하순에는 관후리 주교좌 성당에서 새 교구장 착좌식을 거행할 예정으로 준비에 들어가기도 하였다.<sup>40)</sup>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의 철수가 시작되자 군 당국의 명령에 따라 캐롤 몬시뇰을 비롯한 메리놀 선교사들은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후 메리놀 선교사들은 군중 사목, 포로수용소나 판문점 등에서 복무하였다. 당시 거제도, 부산, 울산, 논산, 광주, 영천, 마산 등지

38) 여진천, 앞의 논문, 2009, 161~166쪽.

39) 최선혜, 앞의 논문, 2015, 150쪽.

40) 평양교구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40~241쪽.

에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다. 포로수용소는 유엔군 관할이었으며 이곳에서 활동한 신부들은 주로 메리놀 선교사들이었다. 클리어리 신부를 비롯하여 크레이그 신부는 거제도와 부산의 포로수용소, 페티프렌 신부는 거제, 부산, 광주, 논산의 포로수용소에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파디(James V. Pardy, 바, 1898~1983) 신부는<sup>41)</sup> 거제도와 마산 포로수용소에서 종교활동을 전개하였다.

클리어리 신부는 캐롤 몬시놀로부터 한국어를 잘 아는 군종신부들이 필요하다는 편지를 받고 자원하였다.<sup>42)</sup> 그리하여 1950년 9월 7일 동경에서 인사부 소속의 군종신부로 임명받았는데 직급은 영관급에 해당하는 GS11이었다. 임명장은 없었고 미군 장교의 제복 위에 군종신부를 표시하는 십자가만을 부착하였다. 클리어리 신부는 안양의 제7사단, 인천의 제3 병참기지에 배치되어 군종 활동을 전개하였다. 군인들에게 하는 강론은 주로 한국인의 의식과 풍습, 한국전쟁의 역사적 배경, 특히 미국과의 외교적 상황,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시각을 비롯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들은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니라 유엔군에 소속된 문관 신분이었다.

크레이그 신부는 덕원 베네딕도 수도원에서 출판한 『신약성서』를 일본에서 다량 수입하여 신자 포로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었다.<sup>43)</sup> 그리고

41) 파 야고보 신부는 1898년 3월 9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출생, 1918년 뉴욕시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메리놀회에 입회하였다. 1927년 뉴욕의 세인트 프랜시스대학, 1930년 1월 26일 워싱턴 가톨릭대학원을 졸업한 후 사제로 서품되었다. 메리놀 소신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다가 1932년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한국에 입국한 뒤에는 평안북도 비현 본당에서 한글을 배우며 영유 본당 사목을 도왔다. 1934년 2월 의주 본당 주임으로 임명되어 사목하다가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 발발 후 강제 투옥되었다. 1942년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신의주에서 6개월 동안 옥고(獄苦)를 치르고 강제 추방된 파 야고보 신부는 미 육군에 입대하여 유럽에서 군종신부로 활동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6년부터 메리놀회 소신학교 교장을 역임하였고, 한국전쟁 발발 이듬해 군종신부로 다시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는 거제도와 마산의 포로수용소에서 미군과 포로들을 위한 사목을 담당하였다. 1953년 9월 12일 장호원 본당 제6대 주임으로 부임하였다가 충청북도 초대 감목대리로 임명되었다.

42) 군종교구 편찬위원회, 『천주교 군종교구사』, 천주교 군종교구, 2002, 10쪽.

43)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문화위원회, 『The Field Afar -Articles on Korea-』 4, 358쪽.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의 협조를 얻어 여자 포로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영세를 주었다. 수녀들은 포로 중 젊은이 6명을 동대신동성당 분원에서 보호해 주며 직장을 알선해 주었는데, 그들 중 4명이 신학교에 입학하여 1명이 사제가 되기도 하였다.<sup>44)</sup>

### 3. 캐롤 몬시놀과 가톨릭구제회 활동

캐롤 몬시놀은 1906년 미국 뉴욕시(New York City)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캐나다 오타와(Ottawa)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이고, 어머니는 아일랜드 출신이었다. 그에게는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난 누이와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곁을 지켰던 톰이라는 형이 있었다.<sup>45)</sup> 캐롤 몬시놀은 1931년 2월 1일 사제 서품을 받은 후 그해 7월 29일 한국 선교사로 파견되었다. 한국에 파견된 선배 메리놀 선교사들처럼 그는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캐롤 몬시놀은 1932년 가을 평양 외곽에 있는 마산 본당 주임 신부로 임명되었다. 그는 본당 회장과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전교 활동의 도움으로 대동군(大同郡) 대보면(大寶面) 팔청리 공소, 강서군(江西郡) 증산(甑山) 시장 공소, 강서군 반석면(班石面) 사천(沙川) 공소 등을 신설하였다. 또한 울동, 임성리, 외서창, 한천 등지의 공소에 학교 설립을 추진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마산 본당에 시약소(施藥所)를 설치하여 가난한 신자와 마산 지역민에게 무료로 약을 제공하고 양로원도 신설하였다.<sup>46)</sup> 1937년 캐롤 몬시놀은 안주 본당으로 전임(轉任)하였다. 하지만 그해 11월 서포의 교구

44)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50년사』, 1998, 158.

45) 메리놀 미션 아카이브 캐롤 몬시놀 약전(<https://maryknollmissionarchives.org/ceased-fathers-bro/monsignor-george-m-carroll-mm/>).

46) 평양교구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368쪽.

관리소로 또다시 이동,<sup>47)</sup> 교구 행정을 맡다가 1940년 서포 본당 주임 신부로 부임하였다. 그는 1941년 12월 7일 태평양 전쟁 발발 직전까지 12년 동안 한국 선교사로서 소임을 다하다가 일제로부터 미국 스파이 혐의로 일제에 억류되었다가 1942년 미국으로 송환되었다.

1945년 해방 이듬해 캐롤 몬시뇰은 미국천주교주교회의 가톨릭복지협의회((National Catholic Welfare Council, NCWC)<sup>48)</sup> 산하 가톨릭구제회(Catholic Relief Services, CRS)<sup>49)</sup> 한국 지부장으로<sup>50)</sup> 임명되어 한국에 입국하였다. 해방 후 당시 남한은 해외 귀환 동포와 월남민이 급증하여 전염병 우려 등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이들의 구호가 시급하였다. 이 때문에 반공주의 성향이 강한 캐롤 몬시뇰은 북한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공산주의 이념의 피해자인 월남민을 구호의 일차적 대상으로 생각하였다.<sup>51)</sup> 즉 캐롤 몬시뇰의 반공주의는 북한 공산 정권의 박해로 인해 발생한 월남민 및 피난민 구호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로 월남민을 비롯한 전쟁 피난민들이 급증하면서 캐롤 몬시뇰의 구호 활동은 점점 확대되었다. 캐롤 몬시뇰은 성 골롬반 외방전교회(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의 선교 활동도 적극 도왔고, 개신교와도 구호 활동을 위해 협력하였으며, 구호의 대상으로 천주교 신자만 가려내지도 않았다. 나아가 1952년 종교를 초월하여 개신교 측과 협력하여 '외국 민간원조기관 한국연합회'(The Korean

47) 평양교구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437~438쪽.

48) 미국천주교회 주교회의 가톨릭복지협의회는 1917년 8월 기본스(Gibbons) 추기경이 그 해 4월 윌슨 대통령에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사랑하는 나라를 보존하고 진보와 승리를 위해 능력을 다해 노력하기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한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가톨릭 전쟁 평의회(National Catholic War Council)가 공식 명칭이었다. 이 조직은 미국 가톨릭교회의 복지 활동 전반을 조직, 통합, 연계 조정을 하는 단체이다.

49) 가톨릭복지협의회(NCWC)에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발생한 난민, 전쟁 희생자, 빈민을 돕고, 각국의 사회사업단체에 물품과 금품을 지원하기 위해 1943년에 설립한 산하단체이다.

50) 1975년 은퇴할 때까지 이 직책을 유지하였다.

51) 최선혜, 「냉전시대 캐롤 몬시뇰의 구호 활동과 그 의의」, 『교회사연구』 34, 2010, 161~163쪽.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KAVA)를 발족시키기도 하였다.<sup>52)</sup> 그리고 두 차례나 회장직을 역임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한국인들의 구호를 위해 로비 활동을 펼쳤다.

전쟁 이후 피난민의 증가로 가톨릭구제회 등 천주교 외원기관의 활동은 점점 확대되었다. 가톨릭구제회는 자체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였고, 교회의 다른 기관이 구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중개 또는 조정하는 역할도 하였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시민들이 피난하는 것에 그쳤지만 전쟁이 지속되면서 전선의 변화에 따라 피난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951년도 초 중공군의 참전으로 이북에서 내려온 월남민의 수가 급증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수는 최대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당시 남한 인구의 1/4에 달할 정도였다.<sup>53)</sup> 한국 정부는 부산으로 인구가 지나치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경남이나 전남, 멀리 제주도까지 피난민을 분산 수용하고자 하였으나, 많은 수가 부산과 거제도 등 경남 지역에 정착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을 구호하기 위해 많은 천주교 외원기관이 부산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였다. 더욱이 부산은 외원기관들이 원조물자를 대규모로 하역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이점도 있었다.

메리놀 수녀회(Maryknoll Sisters)를 비롯한 천주교 외원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부산에서 구호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1950년 4월 메리놀 수녀회는 부산 메리놀 병원을 개원하여 피난민 환자들을 진료하였고, 가톨릭구제회의 대행 기관 역할도 맡아 전재민에게 구호 물품을 나눠 주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별도의 사회과가 구성되어 있을 정도였다.<sup>54)</sup> 그 덕분에 수녀 7명, 간호사 13명 등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근무하며 하루 평균 2,000~2,500명의 환자를 진료하여

52) 최선혜, 위의 논문, 2010, 161~163쪽.

53) 차철욱 외,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부산 이주와 생활공간」, 『민족문화논총』 45, 2010, 25쪽.

54) 메리놀병원40년사편찬위원회, 『메리놀병원 40년사』, 1991, 44~48쪽.

연간 175,000여 명, 개월 이래 1954년까지 연인원 1백만 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다. 1951년 10월 한 달 동안 35,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였다.<sup>55)</sup> 부산 중앙본당에 머물던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녀들은 제15육군병원, 성가수녀회와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 수녀들은 제3육군병원,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는 제3, 제5육군병원 등에서 봉사하였다.<sup>56)</sup> 1951년 11월에는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가 설립한 부산의 성 분도 자선 병원이 1954년 9월 정식 병원으로 인가를 받아 내과, 소아과,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임상병리과 등을 진료하였다.

가톨릭구제회는 부산을 통하여 가톨릭복지협의회(NCWC)를 비롯한 전세계 천주교 외원기관의 물자를 들여오는 통로이자 분배하는 일에 주력하였다.<sup>57)</sup> 가톨릭구제회에서 취급한 원조물자의 양은 얼마나 되었을까. 1950년 전쟁 발발 이후부터 1952년 11월까지 외원단체, 유엔 회원국, 국제난민기구 등의 구호물자 가운데 미국 민간 단체가 전달한 구호물자가 약 44% 정도였고 그 가치를 달러로 환산하면 약 1,100만 불에 이른다. 또한 미국 민간 단체의 구호 중 가톨릭구제회가 담당한 몫이 전체의 34%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1954년까지 가톨릭구제회의 구호품이 미화 1,500만 불이었다.<sup>58)</sup>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 이르면, 외원단체에 의해 도입된 물자의 70% 이상이 가톨릭구제회를 통한 것이었다고 한다.<sup>59)</sup> 이를 통해 1950년대 가톨릭구제회의 활동이 방대하였고 그 규모가 컸던 점을 짐작해볼 수 있다. 즉 1950년대 가톨릭구제회는 미국의 원조가 들어오고 분배되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였다.

55) 『조선일보』 1952년 1월 26일자 「피난세민들의 질병과 싸우는 부산 메리놀수녀원 분투기」.

56) 강인철, 「한국전쟁과 한국천주교회」,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612쪽.

57) 『경향신문』 1953년 2월 4일자 「천주교 구제회 맹활」.

58) 김홍수, 「한국전쟁 시기 기독교 외원단체의 구호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23, 2005, 107~108쪽.

59) 『경향신문』 1958년 3월 31일자 「가톨릭구제회 NCWC는 무엇하는 곳」.

당시, 미국 장로교가 한국에 구호물자를 보내주기 위해 1950년 6월부터 1954년 6월까지 모금한 액수가 약 180만 달러였고 미국 감리교가 1950년 가을부터 한국에 매년 보내준 구호금품이 10만 달러를 웃돌았으며, 1954년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세계 선교본부와 구제위원회 대표들이 한국 교회와 사회 복구 사업을 위해 모금 운동을 통해 모금한 ‘감독 호소 기금’(Bishops’ Appeal Fund)의 액수가 160만 불이었다는 사실과<sup>60)</sup> 비교해 본다면, 당시 가톨릭구제회가 가톨릭복지협의회(NCWC)로부터 받은 구호물자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할 수 있다.

도입된 원조물자는 수도회와 본당, 그리고 필요시에는 지방 행정 당국 등의 도움을 얻어 분배되었다. 이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지역민을 두루 살피는 사목활동을 통해 현장의 요구호와자와 직접 접촉하고 상황을 파악하며 물자를 배급하기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의 모든 본당은 가톨릭 구제회에서 지원하는 식량과 의류 등 많은 구호물자를 나누어주는 센터가 되었다.<sup>61)</sup>

[표-1] 1952~1956년 가톨릭구제회가 도입한 물자의 양과 액수<sup>62)</sup>

연도	수량(단위: 톤)	물자의 환산 가격(단위: 불)
1952년 3월부터	600	1,749,000
1953년	3,200	2,188,000
1954년	3,400	8,370,000
1955년	4,100	8,370,000
1956년 3월까지	1,400	2,455,000

가톨릭구제회는 1953년부터 매년 3,000톤에서 4,000톤의 물품을 도입

60) 김홍수, 『한국전쟁의 충격과 기독교회의 기복신앙 확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68쪽.

61) 춘천교구 50년사 편, 『춘천교구 50년사』, 천주교 춘천교구, 1989, 34~35쪽.

62) 『조선일보』 1956년 4월 20일자 「구호한 액수 근 이천만불 NCWC의 실적」.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57년도의 관련 기사에 따르면 1956년도에 도입한 양곡만 총 10만 톤에 달하였다고 한다.<sup>63)</sup> 즉 1955년도에서 1956년도로 넘어가는 때를 기점으로 구호물자의 양이 확연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미공법 480호의 잉여농산물 사업이 1955년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sup>64)</sup> 구호품들은 모자 보건, 아동 급식, 학교 급식, 근로 지원 사업, 극빈자 구호사업에만 쓰였다. 가톨릭 구제회에서 대상 인원수의 수량을 책정하여 주한 미국 경제 협조처(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USOM)의 승인을 얻어 도입된 것으로 반드시 한국의 영세민, 무의탁자, 병약자, 미망인, 극빈자, 고아와 한센인들 등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sup>65)</sup>

가톨릭구제회의 긴급 구호 활동은 급식소에서 이뤄졌다. 위에서 보았듯이 옥수수가루와 밀가루, 우유가루를<sup>66)</sup> 공급하여 운영되었다. 1958년 남한 각지의 급식소는 93개소로 매일 17만 명의 극빈자에게 우유죽을 제공하였다. 1959년에는 전국 135개소의 급식소에서 251,5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열악한 식량 사정으로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한국인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을 중요시하였다.<sup>67)</sup> 우유죽 급식소는 각지의 피난민촌과 빈민촌에 설치되었으며, 그 운영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본당에서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급식소의 실질적인 활동 주체는 그 본당에 파견된 여자수도회가 맡는 경우가 많았다.<sup>68)</sup>

63) 『경향신문』 1957년 4월 15일자 「잉여농물 십만대를 배급, NCWC 국제천주교구제회의 팔목할 활동상」.

64) 『동아일보』 1955년 12월 30일자 「인수 문제 토의 미 잉여농산물」.

65) 장정란, 「한국전쟁과 외국 가톨릭 교회의 전재 복구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 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 2 - 해방 공간과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197~198쪽.

66) 『경향신문』 1953년 11월 25일자 「미 가톨릭회서 보낸 분유 각 학교에 배급」.

67) 이은희, 「6.25전쟁 구호물자와 서울시민의 식생활 변화 - 밀가루, 설탕, 우유를 중심으로」, 『6.25전쟁과 1950년대 서울의 사회변동』, 서울역사편찬원, 2018, 180~181쪽.

68) 『경향신문』 1959년 9월 7일자 「한강 연안 수재민 칠천명에 급식 새남터의 수녀들은 철야로 강냉이죽 분배」.

가톨릭 구제회의 의료사업은 시약소 등 간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메리놀병원 등 천주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결핵과 한센병 환자 관리 등 중점을 두어 활동하는 특수 의료 분야도 있었으나 이 또한 가톨릭구제회의 자체적 사업이기보다는 협력 사업에 가까웠다.<sup>69)</sup> 수많은 부상자와 전재민이 발생하여 이들을 긴급히 구호해야 한다는 목적과 미국 교회를 비롯한 유럽 가톨릭교회 단체들이 구호사업의 일환으로 의료 분야에 지원 활동을 벌이게 되었기 때문이다.<sup>70)</sup> 특히 미국 주교회의에서는 1953년 한국 구제 비상금을 결의하였고, 가톨릭 복지협의회(NCWC)에서 1953년까지 한국에 제공한 의약품과 의류는 1,130만 불에 달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고아원이나 전쟁 과부를 위한 기관,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전쟁 발발 직후부터 시작한 부모를 잃은 고아와 재난으로 인하여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보육 시설의 설립은 교회의 전쟁 구호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특히 여자 수도회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 사업에 외국 교회의 후원도 집중되었는데, 당시 설립된 시설들은 거의 다 외국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산 메리놀 병원의 나자렛 워크샵(Nazareth Work Shop)은 전쟁미망인을 위한 복지 활동으로 메리놀회 물헤린(Mary Gabriella Mulherin) 수녀가 “한국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값싼 구호품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일”이라고 역설하고, 병원 내 한 건물에 ‘나자렛 집’을 설립한 것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 5월부터 전쟁미망인과 피난민 여성들에게 나자렛 워크샵을 실시하였던 것이 확인된다.<sup>71)</sup>

요컨대 가톨릭구제회의 사업은 1950년대에는 주로 전시와 전후의 긴

69) 『경향신문』 1955년 4월 9일자 「미 가톨릭구제회서 시에 23종의 약품 기증」.

70) 이원희·김대기, 「성 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의 의료활동」, 『교회사학』 14, 2017, 337쪽.

71) 메리놀병원40년사편찬위원회, 『메리놀병원 40년사』, 메리놀병원, 1991, 47~48.

급 구호와 의료사업에 집중되었다. 1950년대에 주종을 이루었던 양곡 사업은 미공법 제480호(PL 480)로 도입된 미국의 잉여농산물로서, 주로 옥수수가루·밀가루·기름·우윳가루 등이었다. 이 물품은 모자보건·아동급식·학교급식·근로지원 사업·극빈자 구호사업 등 종교를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의료사업은 의약품의 공급과 병원의 설립 운영을 위한 원조와 의료기구의 지원 등이었다.

2장, 3장에서 살핀 것처럼, 해방 후 한국전쟁기까지 메리놀회는 군중 및 포로수용소 사목, 구호 및 원조 활동에 참여하며 평양 대목구를 대신할 새로운 선교지를 찾고 있었다. 캐롤 몬시놀은 1952년부터 메리놀회 총장 라네(Raymond A. Lane) 주교, 부총장 월쉬(Thomas S. Walsh) 신부 등과 연락하는 한편 서울 대목구장 노기남 주교와 자주 만나 메리놀 선교사들의 거처와 향후 사목 지역에 대해 협의하였다. 노기남 주교는 충청북도 사목을 메리놀회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충청북도는 서울대목구 사목 관할 구역 안에서 새로운 선교 단체에 그 사목을 분리 위임할 수 있는 유일한 도(道) 단위 선교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서울 노주교께서는 충청북도에 가톨릭 발전을 위하여 그 지방을 감목대리구로 설정하시는 동시 미국 메리놀전교회 신부들을 초청하셨으므로 동회 신부들은 점차로 그 지방에 전교를 시작하리라는바, 감목대리는 아직 임명되지 않았으므로 당분간 안 교구장께서 감목대리직을 겸임하시게 되었다.<sup>72)</sup>

충청북도에 감목대리구가 설정되었음은 지난번에 보도하였거니와, 전에 평안도에 전교하였고 재작년에 다시 한국에 나와 육군병원, 포로수용소 등에서 성직을 봉행하던 파신부가 장호원본당 신부로 임명되어 거월 중순 부임하였다. 한편 메리놀전교회 부총장 『월쉬』 신부는 한국을 시찰하기 위하여

72) 『경향잡지』 1953년 9월호.

거월 11일 입국, 동 16일에는 노주교와 안교구장과 함께 장호원을 방문하였던바, 이 기회에 파신부는 충청북도 감목대리로 임명되었다.<sup>73)</sup>

결과적으로 1953년 8월 노기남 주교는 충청북도 지역을 감목대리구로 설정하여<sup>74)</sup> 대목구 승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53년 9월 16일 파디 신부가 충청북도 감목대리에 임명되면서 충청북도 감목대리구는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sup>75)</sup> 즉 메리놀회는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미국으로 추방당한 후 해방 후에도 그들의 사목지, 평양을 되찾지 못하였지만, 1953년 청주 대목구라는 새로운 사목지를 부여받고 선교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 4. 맺는말

이 연구는 1945년 해방부터 한국전쟁기에 이르기까지 메리놀 선교사들의 한국 재진출 과정에서 반공활동과 함께 한국전쟁기 가톨릭구제회를 통한 구호 활동에 주목하였다. 태평양전쟁 발발로 일제로부터 추방당한 메리놀 선교사들은 해방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한반도의 분단과

73) 『경향잡지』 1953년 10월호.

74) 교회법상의 감목 대리구는 교구의 사목을 공동 활동으로 증진시킬 목적에서 교구 내의 여러 본당을 하나의 연합으로 결합시킨 지구(地區)를 말한다(구 교회법 제445~450조, 새 교회법 374, 553-555조). 다만 포교지(missiones)에서는, 특히 한국 포교지에서는 그 성격을 달리하여 장차 교구를 만들기 위한 첫 준비 단계로 적용되었으며, 그 지역은 보통 도(道) 단위로 오늘의 지구와는 상대가 안될 정도로 넓었다. 한국에서 이러한 지역을 감목 대리구로 부른 이유는 당시 주교를 감목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즉 '감목을 대리한 지구'란 뜻이었다. 또 주교를 대리하여 이 지구를 통괄하는 사제를 '감목 대리(교회법상으로는 지구 대리 또는 지구장)로 불렀는데, 감목 대리에게는 감목으로부터 견진성사 집전권까지 위임되었다(한국교회사연구소, 『감목 대리구』, 『한국가톨릭대사전』 1, 2006, 253쪽).

75) 청주교구 50년사 편찬위원회·양업교회사연구소, 『청주교구 50년사 I』, 2013, 377~379쪽.

냉전이라는 새로운 시련에 직면하여 그들의 사목지인 평양 대목구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천주교회와 미군정 사이의 중재자 임무를 수행하고, 냉전 이데올로기에 맞서 반공주의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캐롤 몬시놀은 가톨릭구제회 한국 지부장으로서 한국전쟁으로 인한 난민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구호 활동에 매진하였다. 그는 식량, 의약품, 의류 등 막대한 양의 원조 물자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긴급 구호, 의료 사업, 사회 복지 시설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한국 사회의 재건에 기여하였다. 캐롤 몬시놀과 메리놀 선교사들은 군중 제도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sup>76)</sup> 평양 대목구 재건을 시도하는 한편, 전쟁 중 포로수용소 등에서 신앙 활동을 이어가는 등 다각적인 선교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재건을 넘어 한국천주교회의 교세를 확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투고일 : 2025. 5. 20. 심사 시작일 : 2025. 5. 29. 심사 완료일 : 2025. 6. 18.

76) 윤선자, 「6·25 한국전쟁과 군중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14, 2001 참조.

## 참고문헌

### 1. 자료

『가톨릭시보』

『가톨릭청년』

『경향신문』

『경향잡지』

『조선일보』

『천주교회보』

『한국가톨릭대사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The Field Afar -Articles on Korea-』

### 2. 연구 논문 및 저서

강인철, 「한국전쟁과 한국천주교회」,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_\_\_\_\_, 「한국전쟁과 천주교 반공주의: 역사적 변동과 비판적 성찰」, 『교회사학』 19, 2021.

김홍수, 『한국전쟁의 충격과 기독교회의 기복신앙 확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_\_\_\_\_, 「한국전쟁 시기 기독교 의원단체의 구호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23, 2005.

메리놀병원40년사편찬위원회, 『메리놀병원 40년사』, 메리놀병원, 1991.

여진천, 「천주교회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인식과 기여」, 『교회사연구』 32, 2009.

윤선자, 「6·25 한국전쟁과 군중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14, 2001.

이민석, 「하느님의 종' 패트릭 번 주교의 선교활동과 순교」, 『아시아가톨릭연구』 2, 2023.

이원희·김대기, 「성 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의 의료활동」, 『교회사학』 14, 2017.

장정란, 「한국전쟁과 외국 가톨릭 교회의 전재 복구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 2 - 해방 공간과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_\_\_\_\_, 「한국 성 베네딕도 수도회 출신 순교자 연구: 시복·시성 대상 인물 분석」, 『교회사 연구』 33, 2009.

군종교구 편찬위원회, 『천주교 군종교구사』, 천주교 군종교구, 2002.

청주교구 50년사 편찬위원회·양업교회사연구소, 『청주교구 50년사 I』, 2013.

최선혜, 「냉전시대 캐롤 몬시뇰의 구호 활동과 그 의의」, 『교회사연구』 34, 2010.

\_\_\_\_\_, 「한국 전쟁기 천주교회와 공산 정권—초대 주한 교황사절 번 주교 (Bishop Byrne)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44, 2014.

\_\_\_\_\_, 「1940년대 천주교회의 한국 선교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 메리놀 외방전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 『교회사연구』 47, 2015.

평양교구사편찬위원회 편, 『천주교평양교구사』, 분도출판사, 1981.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함경도 천주교회사』, 1995.

## ABSTRACT

**The Re-entry and Relief Activities of the Maryknoll during the Liberation to the Korean War Period**

Lee, Min-seok

The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Church History

This study examines the missionary and relief activities of the Maryknoll Fathers and Brothers (Maryknoll) and Catholic Relief Services (CRS) in Korean society from the Liberation in 1945 through the Korean War. Expelled during the Pacific War in 1941, Maryknoll missionaries re-entered South Korea after liberation but faced the challenges posed by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nset of the Cold War, which prevented their return to their original apostolate in the Pyongyang Vicariate Apostolic. In this context, they acted as intermediaries between the Korean Catholic Church and the U.S. military government, actively embracing anti-communism and 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regime's suppression of religion within the ideological framework of the Cold War.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CRS—under the leadership of Monsignor George M. Carroll—launched large-scale humanitarian operations for refugees and those affected by the conflict. By importing and efficiently distributing substantial quantities of aid, including food, medicine, and clothing, CRS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postwar reconstruction of Korean society through comprehensive relief initiatives, such as emer-

gency aid, medical services, and support fo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Maryknoll missionaries also contributed significantly by assisting in the establishment of the military chaplaincy system and carrying out pastoral work in prisoner-of-war camps. Furthermore, they were entrusted with a new mission territory in Chungcheongbuk-do, replacing the lost mission area in Pyongyang.

**Keywords:**

Maryknoll, Catholic Relief Service, chaplain, George M. Carroll